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에 2조원 투입

바이오제약 세액공제 20% 세계 최고 ... 30년 후 첨단신약 16개 개발

정부는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신약 연구개발(R&D) 펀드를 조성하고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허가과 규제 대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제약 산업에 벤처와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고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등 산업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약산업 구조 혁신, 해외진출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국가적 질병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제약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를 지원키로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09년 지식경제부가 7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을 확충하고 후속 펀드를 설립해 펀드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고 5년 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의 17배에 이르는 세계 제약시장(7731억달러)을 놓고 이미 영국과 타이완은 각각 15억달러, 말레이시아는 2억달러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조성해놓은 상태이다.

정부는 2월 중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을 신 성장동력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약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예산도 2009년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인 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가 구성돼 중장기 추진전략도 마련하게 된다.

당장 복지부의 2010년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모두 2121억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어났다.

또 앞으로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신약 16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부터 상용화하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송도 BRC센터 등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난립하고 있는 국내 영세 제약기업 간 M&A를 촉진하고 특허사용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M&A에 대해 컨설팅 및 세제, 펀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11년부터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8>